

중도·청산도·유치·창평
슬로시티로의 초대

벌 치고 꽃 가꾸고...시간이 멈춰선 곳



'더 나은 삶'을 찾아 인암마을에 자리잡은 한국화가 정찬용씨(오른쪽)와 시인 김효문씨가 지난 4월, 가지산 중턱 뒷밭에 마련해 놓은 벌통을 들여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장흥 유치면 인암마을

시인·예술가들 모여 '문화 공동체' 존재를 지향하는 '느리게 사는 삶'

장흥 슬로시티에는 시인과 화가, 공예가 그리고 동양철학자들이 한데 모여 사는 마을이 있다. 가지산 자락에 펼쳐진 유치면 조양리 인암마을이 그곳이다. 가지산 중턱 해발 400m부근에 자리 잡은 이 마을에는 3년 전 시인인 김효문(52)씨가 들어와 가족과 함께 황토집을 짓고 정착한 이래 한국화가 정찬용(47)씨와 동양철학자인 정치균씨(41) 공예가인 박경모씨 등이 차례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지금도 해체된 장흥 문화마당에서 만난 이들은 '소유를 지향하기보다는 존재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보자'는데 의기투합,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슬로시티인 장흥에 보금자리를 꾸렸다.

지난 4월 찾아간 인암마을은 육지에 자리 잡은 '섬'이었다. 기본 좋게 뻗은 아스팔트 도로를 달려가다 '인암마을' 표지석 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바뀌었다. 콘크리트 구조물과 전선주 등 현대 도시의 산물들이 자취를 감추는 대신, 어린 시절 언젠가 보았던 것만 같은 모습이 눈 앞에 펼쳐졌다. 현재가 사라진 자리에는 울창한 수풀과 초록색 따사로운 햇볕, 여기저기 숨은 듯 아늑하게 틀어선 집들이 기억 저편의 아련한 향수를 건드렸다.

마을 높은 곳, 시야가 탁 트인 곳에 자리 잡은 시인 김 씨의 황토집 주변 대기는 낮놀이(날씨가 좋을 때 벌들이 벌통 근처에서 한데 모여 진을 치는 일)에 열중한 꿀벌들의 날갯짓 소리로 웅웅거렸다. 산 중턱의 청명한 공기와 눈부신 햇빛이 벌들의 날갯짓 소리와 뒤섞이면서 나른한 느낌을 자아냈다.

황토집 옆 뒷밭에 마련된 벌통을 들여다보던 김 씨는 "3년 전 이곳에 들어온 이후 '느리게 사는 삶'을 살면서 마음 가득 충만함을 느끼고 있다"며 "이제는 도저히 도시에서 못살겠다"고 손을 내저었다.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50여 통의 벌통을 돌보고 있는 김 씨는 낮에는 유채꽃을 비롯해 꿀벌들이 먹을 수 있는 각종 꽃과 나무들을 가꾸고, 밤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시를 구상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살기 좋은 마을'을 꿈꾸며 함께 정착한 나머지 3명의 '동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주요 일과 가운데 하나다.

"벌 치고, 뒷밭 보살피는데 시간을 쪼개서 할 정도로 바쁘지만 마음만은 한가롭다"는 김 씨는 "생활비도 안 들고, 윗 고민도 없으니 따로 소유할 이유도 없다"며 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 슬로시티의 생활을 소개했다.

김 씨의 황토집 바로 곁에 또 다른 황토집을 짓고 있는 화가 정 씨는 이 마을 이장으로, 장흥슬로시티 추진위원을 맡고 있다. 뜻이 맞는 동지들과 함께 일종의 '문화 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를 갖고 지난해 이곳으로 들어온 정 씨는 꿀벌들을 먹여살리기 위해 벌통 유채를 심고 가을엔 메밀을 가꾸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러 차례 그림전을 개최했을 만큼 한국화에 대한 열정이 뜨겁지만, 아직까지 집이 완성되지 않아 그림작업을 미루고 있다.

"서울과 광주 같은 대도시에서도 많이 살아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살이 즐거운 마을'을 동경해 왔다"는 정 씨는 "인암마을에서 살다 보니 슬로시티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슬로시티(Slow City)란

고유한 자연환경과 생활방식, 전통음식을 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마을. 한국에선 신안군 중도와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창평, 담양군의 창평이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개 국가에서 101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여행노트

장흥 유치면

장흥 유치 가는 길은 한적하다. 도로 양쪽에 늘어선 가로수 이파리는 초록이 짙어가고, 모내기를 마친 무논은 햇살을 받아 반짝거린다. "호랑이 장가가냐?" 맑은 하늘에 빗방울이 똑똑 들다가 금세 멎는다. 장흥땀을 끼고 돌고 돌아 터널 두어 개를 지나니 공기부터 다르다. 남도의 여느 땅과는 달리 침침산중이다. 슬로시티란 이런 곳일까? 산줄기들이 흐르는 시간을 똑똑 끊어버린 듯하다. "엄마, 공기 냄새가 달라." 큰 아이가 차창으로 들어오는 초록바람을 흠뻑 마신다.

유치면 신월리 월암마을에 위치한 유치자연휴양림에 다다랐다. 초입부터 나무터널이 주욱 이어진다. 52ha에 달하는 천연림에는 멀구슬나무, 비목나무, 때죽나무, 떡갈나무, 자귀나무, 느티나무, 수양버들나무, 편백나무, 소나무, 팽나무, 가래나무, 산벚나무, 산수유, 고로쇠나무 등 400여 종이 뿔뿔하다. 그 속에 피코리, 멧비둘기, 물까치, 박새, 병어리, 삵, 붉은 머리 오목눈이, 직박구리, 오색딱따구리, 호랑지빠구리 같은 새들이 등지를 틀고, 거위벌레,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무당벌레, 제비나비, 사마귀, 탈매미, 알락하늘소, 큰 줄 나비, 반딧불이, 왕잠자리, 호랑나비와 같은 곤충들이 산다. 그야말로 자연학습장이다. 수목에서 내뿜는 '테르펜 피톤치드'라는 방향성 물질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장과 심폐 기능 강화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산책로를 따라 올랐다. 자귀나무, 산딸나무, 산벚나무 등 예쁜 이름이 붙은 통나무집(산막)들이 보인다. 가족용 숲속의 집부터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휴양관까지 16동(棟)이 늘어섰다. 산길 따라 작은 계곡에 걸쳐 있는 구름다리를 건넜다. 아이들은 흔들흔들 신이 났다. 길립길이다. 용녀폭포는 400m, 무지개폭포는 700m, 용녀폭포 가는 길이 제법 가파르다. 곳곳에 늘어뜨린 밧줄을 잡고 올랐다. 큰 아이는 "서바이벌장이 따로 없네"라고 투덜댄다. "이게 폭포야?" 거름에 물줄기가 말라버렸다. 폭포 아닌 폭포를 뒤로한 채 산행을 계속했다. 한 시간쯤 삼림욕을 하고나니 가슴은 물론 머리까지 개운해진다. 정상까지는 한참 남은 듯해 발걸음을 되돌려 하산했다.

통나무집 근처에서 점심하는 일행을 만났다. 장흥 땀 수목지역의 신월리 출신 사람들이 부부 동반으로 나왔다. "이 곳은 무지개골이라고 불러요. 무지개가 잘 뜨거든요"라며 "지금은 가을이어서 계곡에 물이 없지만, 소나기라도 내리면 금세 물이 넘쳐나요. 한 여름엔 정말 장관이지요." 황동하(50)씨의 고향 자랑이다.

"녹음이 흘러내린/ 골짜기에 흐르는 물/ 하늘을 담아두고/ 조각날 띄워두고/ 시간의 물레를 풀어/ 나도 함께 흐른다." 현관에 쓰인 시(詩)를 감상하며 농월정(弄月亭)에서 점심을 먹고 한가로이 머물다가 여장을 다시 챙겼다.

광주로 돌아오는 길, 휴양림에서 16km쯤 떨어진 보림사(寶林寺)에서 멈췄다. 유치면 봉덕리 가지산 자락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보림사는 통일신라 후기(860년 경)에 세워진 천년고찰. 이곳에는 1,150살이 된 '철부처' 철조비로자나불좌상, 삼층석탑과 석등 같은 국보와 보조선사 부도와 부도비 같은 보물들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인적 드문 경내를 찬찬히 거닐었다. 삼림욕으로 씻긴 마음에 평화로움이 엮인다.

기억이 흐려내린/ 골짜기에 흐르는 물/ 하늘을 담아두고/ 조각날 띄워두고/ 시간의 물레를 풀어/ 나도 함께 흐른다." 현관에 쓰인 시(詩)를 감상하며 농월정(弄月亭)에서 점심을 먹고 한가로이 머물다가 여장을 다시 챙겼다. /글·사진=김희영·주부·광주시 동구 윤림동



구산선문(九山禪門)의 하나인 장흥 가지산 자락에 들어선 보림사. 우리나라에서 선종(禪宗)이 처음 시작된 보림사의 모습이 주변 경관과 어울려 고즈넉해 보인다.

7 광주일보 추천 제주도 여행 상품!

세련되고 아름다운 섬 제주도 - 새로운 유행으로 더욱 저리하게 다녀오세요!!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떠나는 즐거운 제주도 여행

- 항공료, 제주도, 숙박료 지원금: 219,000원
- 기간: 2009.06.14 - 07.14 (매주 토요일 출발)

새롭고 다양한 체험위주의 여행상품

- 01** 제주항공(제주-서울)·제주도항공(제주-제주) 여행 상품
 - 제주도항공(제주-서울) 여행 상품: 제주도항공(제주-서울) 여행 상품
 - 제주도항공(제주-제주) 여행 상품: 제주도항공(제주-제주) 여행 상품
- 02** 생활 문화 체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
- 03** 생활 문화 체험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